

#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

김혜숙\* · 김행신\*\*

## 目 次

- |                      |
|----------------------|
| I. 서 론               |
| II. 주거와 환경           |
| III. 제주도 민가 형성의 재 요인 |
| IV. 가족구조와 거주행태       |
| V. 제주민가의 공간구성과 가족구조  |
| VI. 결 론              |

## I. 서 론

인간실존의 중심적 장소이며 본질적 근거지인 住居는 인간이 처한 환경에의 적응방식이자 삶에 대한 인간의지의 표현으로 자연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한다.

그 결과 각기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생존요소와 시대적 상황 및 지역적 특수성이 담겨져 있고 가치·관념·사고 등의 정신문화가 상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오랜 역사를 겪어오면서 형성된 民家는 고유의 생활상 및 그 지역 특유의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어 주거문화의 이해와 계발에 반드시 필요한 基底的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계를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경향과 관련하여 주거건축에서 지역성과 역사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民家는 그 안에 스민 고유성과 합리성을 현대의 주거에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架橋로서 매우 가치있는 연구자료이다.

\*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강사)

우리나라의 民家研究는 1970년 이래 특히 건축학, 지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민가배치와 구성, 평면의 유형 등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많은 진전을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 민중의 삶이 점철되어온 民家は 주거의 주체인 인간(가족)과 공간과의 유기적 연관성이 제대로 파악되고 연결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을 담아내는 生活의 場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물리적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주거에 있어 핵심적이고 역동적 요소인 가족생활적 측면이 간과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생활의 용결체로서의 民家は 무엇보다도 가족생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간(가족)과 공간의 대응관계 규명에 목적을 두고, 제주도 민가를 대상으로 하여 독특한 가족구조와 주거공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인간(가족)생활과 주거공간과의 유기적 연결과 분석이 가능하며, 주어진 환경에의 수용과 대응을 거듭하면서 이룩한 이상적 환경으로서의 민가를 미래의 주거에 적용하여 보다 바람직한 주거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II. 주거와 환경

### 1. 주거의 의미

인간이 이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 형성한 인위적 환경인 주거는 인간과 세계 사이의 완충대(buffer)로서<sup>1)</sup>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이나 방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점유한다는 합리적·실용적 의미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세계내에서 확인하고 정립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과 행위틀 의미한다.<sup>2)</sup>

즉 세계속에 던져져 있는 불안하고 외로운 존재인 인간은 삶의 세계에 착실하게 발을 붙이기 위해 집을 짓고, 친숙하고 안정된 삶의 보금자리로서의 집을 통해 인간의 절대적 내면세계와 낯설은 외부세계를 연결<sup>3)</sup>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사회적·심리적 공간에 대한 개개인의 더 능동적이고 유동적인 관계를 함축하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장소의 지속적이고

1) Humphries, G.M., "Values, Satisfaction, Aspirations and Goal Commitment among Multiunit Housing Resident",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1976, p.25.

2) Bognar, B.,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Architecture and its Teaching", in D. Seamon & R. Mungeraure (eds),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Mainnus Nijoff pub, 1985, p.189.

3) 홍형욱, "주거의 인간학적인 의미", 「대한 가정학회지」, 20권2호, 1982, p.129.

능동적인 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것은 삶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삶을 결합하며, 새로운 삶과 사회적 범주를 창조하고 과정에 의미를 주고 이리하여 세계에서 정체감과 장소감을 획득하도록 한다.

## 2. 주거와 환경

주거는 민족, 지역, 시대에 따라 그 외형적 형태 뿐만 아니라 내부공간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주거공간의 특성은 그것을 한정짓는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에 있으며 주거에 나타난 특성은 이러한 요소들이 구체화된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eiser는 주거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생물·물리적 환경, 사회·심리적 환경 그리고 기술적 환경을 들었으며<sup>4)</sup> 石毛直道는 주거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자연환경, 생활양식, 기술체계, 가족형태, 집락형태, 사회구조, 정신구조의 靜的인 구조와 타 문화 접촉이라는 動的구조라 하였다.<sup>5)</sup> 주거현상은 물리적 요소(기후, 재료, 대지, 기술)와 사회·문화적 요소(가치관, 가족형태, 생활양식)의 결과이므로 주거에는 이런 요인들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는 주거를 통해서 사회의 시대상이나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변천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주거형태와 문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한 Rapoport는 종교적 믿음, 가족 및 친족의 관계, 사회적 조직, 생계유지 방법, 개인간의 사회적 관계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주거형성에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sup>6)</sup> 우리는 동일한 자연·물리적 환경하에서도 상이한 주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후, 재료, 기술의 제한과 가능성이 주어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삶에 대한 인간들의 요구나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자연환경도 주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행해지는 선택에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주거는 여러 가능성 속에서의 선택의 결과이며 생활방식에 가장 적합한 환경의 창조인 것이다. 몇몇의 기본적 요구, 가족, 여자의 위치, 프라이버시, 사회적 접촉등은 주거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양식<sup>7)</sup>의 내용들이며 주거는 이런 생활양식을 영속시키고 조장하는 물리적 장치이자 메카니즘으로서 특수한 공간의 조직을 통해 표현된다.

4) Keiser, M.B., 「Housing on Environment for Living」, Macmillan pub, N.Y., 1978.

5) 石毛直道, 「住居空間の人類學」, 東京, 鹿島出版會, 1976, p.239.

6) Rapoport A., 「House Form and Cultule」, Prentice-Hall, Inc., 1969, p.47.

7) 上掲書, p.47.

### Ⅲ. 제주도 민가형성의 제 요인

주거건축의 한 유형으로서의 民家는 한 사회의 보편적이며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다. 이를 시대를 반영하는 사회구조의 맥락속에서 민중들에 의해 창출되고 변화되며 계승되는 건축현상이기에 건축사의 한 부분으로서 조명을 받아왔고, 그 지역 및 사회를 특징짓는 문화적 산물이기에 지리학과 민속학 및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대상이 되었다. 또한 민중의 住生活이 융해되어 경제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이기에 주거학 및 건축계획학에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민가는 한 민족집단의 다수이며 보편적 핵을 이루는 기층인 민중의 주거로서, 시대에 따라 그 민족집단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주거유형<sup>8)</sup>이며 그 지방고유의 전통과 특성이 전해지는 살림집<sup>9)</sup>이다. 시대적으로는 식민지 문화이식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기전의 전통양식을 말한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제주도 민가 역시 제주도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제주도 고유의 전통양식에 의한 살림집으로 한정하였다.

제주도 民家の 여러 특성중 자연적 환경의 영향은 외부형태, 재료 및 구조 등에 잘 나타나 있으나 주거공간의 주 요소인 평면 및 배치등의 공간구성에는 제주민의 생활양식, 의식구조, 가족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이 더 잘 나타나 있다.

#### 1. 자연적 환경 요인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화산도로 돌이 많은 척박한 토질에 따뜻한 기온, 바람과 비가 많은 기후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거 건축 재료는 화산도인 이곳에 많은 현무암으로 벽을 쌓았으며, 지붕은 풍부한 산출재료인 茅(새)로 처리하였다. 따뜻한 기온의 영향으로 개방형의 가옥구조를 하고 있으며 상방(마루방)이 공간의 주요 요소가 되고 타 지역과는 상이한 취사와 난방이 분리된 상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많은 바람에의 대비책으로 바람에 대한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지붕은 낮고 둥근 dome모양의 耐風的 형태를 하고 있으며 바람에 견디기 위해 '새'를 꼬아 만든 '줄'을 가지고 가로 새로로 엮었다. 이외에도 외부 창호가 모두 板長門으로 되어있는 점이나 '돌풍채' '발풍채'(wind breaker)의 발달, 물매가 낮을 뿐만 아니라 외벽이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무암으로 쌓는 것 등은 모두 바람에 대한 고려<sup>10)</sup>이다.

제주민은 이처럼 불리한 자연조건과 척박한 토질, 절해의 고도라는 한계성 안에서 그것을 극복

8) 강영환, "민가의 개념", 「건축과 환경」, 1987.8, p.10.

9) 장보용, "제주도 민가의 연구", 「지리학」, 1974.10, p.13.

10) 김경기·김홍식, "제주도의 건축", 「제주도 문화제 및 유적종합보고서」, 1973, p.294.

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책이자 적용으로서 가장 적합한 특유의 민가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연적 조건과 관련이 깊은 구조나 재료, 외부형태 등은 주거의 한 부분인 현상적·외형적인 것에 불과하며,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주거를 자연적 조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와지게 하였으므로 자연적 환경의 영향력은 점점 적어져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原澤東吾도 주거는 특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연적 여건보다는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sup>11)</sup>고 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 2.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

### 1) 사회와 문화

주거건축은 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예술이므로 그것이 형성된 사회문화를 고려하지 않고는 얘기되어질 수 없다.

문화는 특정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따르는 생활의 양식이며, 사회생활을 통해 습득한 행위의 유형이며 믿음의 총체이다. 말하자면 사회는 그릇이요, 문화는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라 하겠다.<sup>12)</sup> 인간이 자연환경 속에 적응·생존하기 위해 불리한 생물적 조건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제·수정하는데 유효한 것이 문화이다.

우리는 문화를 언급할 때 사회와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회생활을 통해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며, 인간이 문화창조의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그것이 문화를 이룩하는 데에는 한데 모여 사는 사회적 삶이라는 여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리적, 기후적인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도 여타 지역과는 매우 다르다. 한반도의 문화가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해양도서적인 독자적 고유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고유문화를 기층으로 이후의 한반도와의 문화접촉으로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다.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세가지 주요한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생태학과 자원에 관계가 있는 생존을 위한 일련의 적합한 책략으로서, 또 한 집단을 대표하는 생활방식으로서 그리고 상징·의미 및 인지도식의 체계로서이다.<sup>13)</sup> 생태적 압력에 대한 효과적인 집단적 적용으로서의 문화는 제한된 자원의 범위내에서 욕구와 생활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하게 한다. 즉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여러 유형의 생존 전략-생산방식-을 취한다.

제주도는 화산도로 토질이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작방식이 소농경영에 의하였으므로 富의 축적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다. 뿐만 아니라 심한 관리들의 수탈과 과도한 稅制 등은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

11) 原澤東吾, 「建築哲學序說」, 東京, 鹿島出版會, 1974, pp.24~40.

12)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1978, p.142.

13)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현암사, 1984, p.23.

소농이 대부분인 까닭에 상류계층도 노비계급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체면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의식구조를 지니지도 않았다. 인간이 어떠한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지니는가 하는 것은 문화 또는 하위문화(subculture) 및 사회계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데, 이것은 인간은 모두 어떤 계층에 속하며 이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욕구, 기대, 역할이 달리 부여되기 때문이다.

조선조의 한반도 문화를 유교문화를 규정지을 수 있다면 제주도의 문화는 유교의 영향이 희박한-명분보다 실리를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문화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 2) 생활양식

특정한 집단 또는 한 지역이나 나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생활(삶)에 관한 그들의 방식을 통제하는 일련의 통제 메카니즘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생활양식은 모든 가능성 있는 대안 중에서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생활양식은 생활환경에의 대처 혹은 생활과제의 독자적인 해결방법과 장래로 향한 목표지향 노력안에 나타난 일관성과 통일성을 의미<sup>14)</sup>하며 생활양식은 개인이 문화, 사회계급, 준거집단(reference group), 가족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하게 되는데 거주행태에는 생활방식이 잘 나타나게 된다.

가정과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양식 설명을 시도한 Mannino는 생활양식의 다양성, 가족행동과 어떤 환경상황간의 관계, 가족과 환경의 상호관계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sup>15)</sup>고 하므로써 생활양식은 가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을 시사하고 있다.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겪으면서 제주민은 독립적이고 강한 생활의지, 근면한 생활태도를 지니게 되었으며 각각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찾음으로써 불안전하고 신뢰할 수 없는 환경속에서 살아나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부녀자나 노인 모두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자기의 삶은 결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철저하였다.

인간과 문화적 차원과의 관계는 인간과 그의 환경이 서로를 형성해 가는 것과 동일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은 환경안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다시 환경에 영향을 가하는 상호작용을 하며, 문화는 인간이 형성하나 또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해 나간다. 문화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그들이 공간과 시간을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간의 구성과 이용 문제는 문화의 한 특수화된 結晶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주거의 이용과 구성은 해당문화가 지닌 가치 및 믿음을 반영시키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14) Adler, A., "Life Style : The Essence of Social class", in W.D., (ed), 「Life Style and Psychographics」, 1974, pp.235~256.

15) Mannino, F., "An Ec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Family and Community Relations", 「Journal of Economics」 1970, p.66.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거는 현상적·외형적 측면보다 공간구성의 특성과 공간사용 및 점유행태 등의 내용적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하다. 내용적인 면은 사회문화적 요인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구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거의 성립과 공간점유에 있어서 그 사용자인 인간(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거문화의 특성을 주거의 구성과 그 생활행위, 거주인의 인간관계 유형 및 가족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 IV. 가족구조와 주거행태

### 1. 가족형태와 거주유형

각 사회는 그 사회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 사회내에서도 상이한 하위문화(subculture)가 존재하는데 이는 각각의 하부 단위내에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 이러한 문화전달시 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며 우리는 가족을 통해 그 사회의 문화를 읽을 수 있다.

가족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꾸준히 지속되어온 기본적인 사회제도로서 시대나 사회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 같은 국가에 있어서도 계급, 직업, 생활환경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모습을 나타내며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인류사회에 나타난 많은 가족은 그 형태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은 주거의 주체이자 핵심적 요소로서의 가족의 구조\*에 따라 주거공간의 구성 및 특성 그리고 거주행태가 달라지게 된다. 그것은 생활자인 가족의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의 본질적 파악을 위해서는 주거공간과 함께 가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가족은 생활조건과 관련된 특수한 가족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거주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철저한 분가원칙에서 찾을 수가 있다. 장남도 혼인하면 분가를 하며, 한 울타리안에 거주하더라도 서로 다른 櫛(제)에 따라 생활한다. 나아가 주거의 독립만이 아니라 취사와 경제생활도 완전히 분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자간에 異見이 있다. 최재석은 제주도의 가족을 핵가족이라 정의<sup>16)</sup>하였고, 이에 대해 김한구는 경제 및 주거의 독립은 사회·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의 경작 및 분업화과정(process of division of labor)일 뿐이며 핵가족은 아니라고 하였다.<sup>17)</sup>

\* 가족의 구조는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형태, 권위의 패턴, 역할, 가족통합의 정도등을 모두 포함한 가족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다.

16)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p.19.

17) 김한구, “제주도의 친족조직”, 「한국학보」 1980. 19, pp.184~187.

가족을 정의함에 있어 Murdock은 공동의 거주와 경제적 협력 및 생식을, Lévi-Strauss는 가족원의 유대, 인간관계, 감정적 결합등의 심리적 정감을 가족요건으로 증시하였다. 그러므로 제주도 가족이 핵가족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어떤 요건에 중점을 두어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있어 가부장제 대가족은 이상화된 가족이며 대다수는 부부와 소수자녀로 구성된 2대 가족이 보편적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창기는 제도적 가족과 실제적 가족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은 가족의 형태와 관련하여 거주규정 즉 결혼후 부부가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상속이나 권리, 의무와 같은 出系律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거주지를 옮기는 배우자는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배우자에 비해 적응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함께 거주하는 쪽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거주형태나 주거에 있어서의 공간점유, 기거위치 등은 가족내의 권위(Power) 구조를 반영하거나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주규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父居制(patrilocal residence)로 남편의 본가에 들어가 그 권한 영역내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妻의 본가에 들어가서 동거하는 것은 母居制(matrilocal residence)이며, 양가의 어느 편에도 들어가지 않고 새살림을 차려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新居制(neolocal residence)이다. 新居制의 순수형은 부모의 간섭이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디에 어떻게 거주하느냐는 단순히 물리적 의미만을 지니지 않고 가족내의 위치와 역할, 권위와 관련된 가족구조를 반영하며 따라서 가족구조 변화는 주거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 2. 역할 및 권위구조와 공간특성

가족구조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계층, 종족 및 인종적 요소에 따라 나타나며 권위의 형태, 가족 통합력 등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제주도의 특수한 가족구조는 생업 및 생산력 등의 여건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이상적 가족유형은 나이가 들어도 움직일 수 있는 한 자식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쇠·사망 등에 의한 자활능력의 상실에 의해서만 직계가족의 유형을 취한다. 이광규는 제주도의 가족을 핵가족적 특성의 독립형 가족이라 하였고 그것이 여자 중심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하였다(여자 중심의 독립형 가족).<sup>19)</sup> 이는 생활단위 중심을 母라고 본 것인데, 같은 울타리 안에 거주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몹시 노쇠하지 않으면 며느리에게 결코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18) 이창기, "한반도와 한국사람 : 제주도편" 「한국의 발견」, 뿌리깊은 나무사, 1983, pp.178~181.

19) 이광규,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 사회학적 측면-가족" 「탐라문화」, 1984.3, p.65.



인 생활을 이끌어 간다. 시어머니가 사망하고 시아버지가 생존하던 자동적으로 며느리가 모시게 된다. 母中心의 또는 여자중심적 가족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구조를 이루게 된 근거에는 소농경영이라는 생산방식과 거기에서 결과된 어려운 생활여건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민으로 하여금 강한 독립성과 실질적·합리적 생활관을 가질 수 밖에 없도록 하였고 여성의 역할참여의 증대를 필연적으로 가져왔을 것이다. 그 결과 개별단위의 독립적 주거와 더불어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이 세대(世代)별 그리고 성별에 있어 비교적 대등한 관계 구조를 이루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부부의 역할도 가족 기능론자들의 견해에서 보는 남편-수단적 역할(Instrumental-Role), 부인-표출적 역할(Expressive-Role)의 고정적 패턴에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었으며 상호 협조적이었다. 여성이 가사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유연한 적응이었다 하겠으며, 부부 관계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있었다.

한국의 부부관계는 직계가족을 이상형으로 하는 가족의 특성때문에 남편은 전통적으로 높은 지위의 家父長權을 가짐으로써 불평등한 지위관계를 형성했다. 즉, 남편이 가족내의 대부분의 권리를 장악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그 후계자는 아들이 되었다. 家父長權의 상징적 측면은 전통주거에서는 舍廊의 형태로 나타나 남존여비가 심할수록 사랑채 공간의 유용이 뛰어나고 안채는 폐쇄형으로 지어지는데<sup>20)</sup> 반해 제주도 민가의 공간에서는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가부장권이 강력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여성의 지위나 역할 및 위치가 타 지역과는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가옥에서 상류주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공간분화가 현저하며 일반 민가에서는 이처럼 미분화되지는 않아도 성별에 따라 영역이 구분된다. 즉, 상류주택에서와 같이 사랑방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 비해 제주민가는 棟(채)과 棟간에도, 한 棟(채)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영역구분은 볼 수 없다. 단지 세대(世代)별 분화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며 세대간에도 위계성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구조는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수직구조이므로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sup>21)</sup> 동일한 棟(채)내에 거주해도 위계가 있기 마련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상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특성들은 생산방식과 관계된 어려운 생활여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유교의식의 약화로 남녀유별이나 내외의식 그리고 권위나 서열의식등이 희박했던데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홍형욱,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7, pp.46~49.

21)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1989, p.70.

## V. 제주민가의 공간구성과 가족구조

### 1. 배치·평면유형과 가족형태

주거에 있어서 평면구성 및 공간사용은 자연조건이나 생업형태, 생활양식 및 가족채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장소적 고유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가치와 의지 및 문화집단의 관심과 의도가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각 실의 배치 및 위치, 공간분할, 통로 등의 조합을 통해 표현된다. 주택의 배치는 주거자체의 형태와 공간구성이 변경된 후에도 존속되는 것으로 평면과 더불어 주거연구의 중요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민가의 배치·평면유형과 가족형태와의 관계를 살핀다.

민가는 일반적으로 單列型, 複列型으로 분류되며, 형태에 따라 一字집, 곱패(곱은자)집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제주도 민가는 一字型의 겹집에 속한다. 一字型을 이루게 된데에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핵가족적 독립형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가족유형과 대지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성기에 따르면 도시주택은 대지의 제약으로 한정된 대지속에 필요한 방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야 했으므로 한 지붕밑에 필요한 방들을 서로 연결하여 ㄱ, ㄷ, ㅁ 등을 이루었으나, 비교적 대지의 제약에서 자유로웠던 지방주택은 대지의 경계에 따라 담을 쌓고 그 속에 필요한 건물을 배치하여 一字型의 개개의 독립된 건물을 이루었다<sup>22)</sup>는 것이다.

一字型이면서 타 지역과 다른 점은 타 지역은 독립된 건물 즉 棟(채)과 棟(채)의 기능과 평면구성이 다른 반면 제주민가는 채와 채의 평면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분리배치(別棟配置)되어 세대별로 거주하는데 있다. 핵가족으로 완전히 독립된 가족들이 별개의 단위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안에 한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공간이 집약되어야 했으며 그래서 겹집구조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겹집구조는 극소형의 민가에서 한정된 공간을 집약적으로 기능계획을 하려는 의지와 여기에 풍토적인 조건이 가해져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역인이 없는 가족중심의 자영농층에 알맞는 구조<sup>23)</sup>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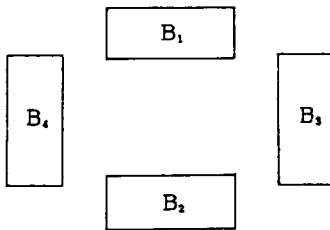
제주민가는 각각 독립된 동일한 평면의 一字型 건물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배치를 한것이 특징이다. 棟(채)는 '거리'라고 불리워지며 본채(안채)는 안거리, 안거리와 마주보게 놓인 채는 밖

22) 조성기, "한국남부 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1986, p.109.

23) 김홍식, "한국민가의 유형별 분류", 「건축사」, 1980, 36, p.12.

거리, 안채와 직각으로 모서리에 놓인 채는 모커리이다. (채)수에 따라 '한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 '네거리집'으로 분류가 된다.

〈그림1〉 제주도 민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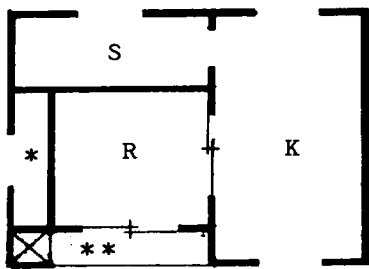


- B<sub>1</sub>: 안거리(본채, 안채)
- B<sub>2</sub>: 밖거리(안거리와 마주보도록 놓인 채)
- B<sub>3</sub>·B<sub>4</sub>: 모커리(안채와 직각으로 모서리에 놓인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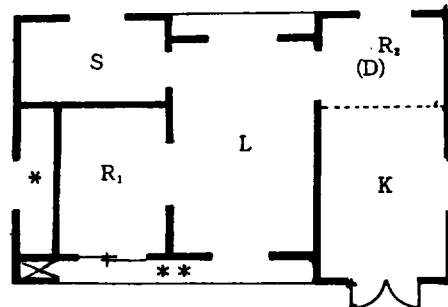
안거리는 부모가 생활하고, 밖거리는 기혼 자녀가 사는 살림집이며 모커리는 부속사이거나 안거리의 적은 방 수로 인하여 미혼 자녀가 안거리에서 떨어져 나와 사는 간이형 집이다. 보통 2~3거리집이 일반적이다.

제주민가의 평면형은 2간형, 3간형, 4간형 등이 있으며 3간형이 기본형이다. 2간형은 구들, 고팡, 정지로만 구성된 가장 원초적 형태(그림2)이다. 3간형은 제주민가의 기본형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그림3). 그리고 이 3간형은 정지(부엌:K) 부분이 전체가 정지인 형과 그 부분이 둘로 분할된 형 2가지가 있다. 분할된 윗 부분에 작은 구들이 있는 형이 많고 간혹 그 부분이 셋방(식당)이 되기도 한다.

〈그림2〉 2간형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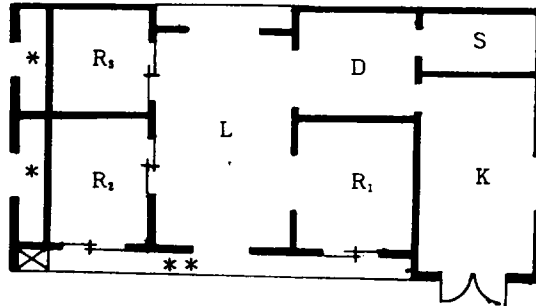
〈그림3〉 3간형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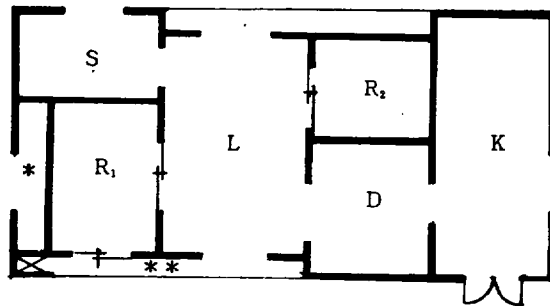
- R: 구들(방) (R<sub>1</sub>: 큰구들, R<sub>2</sub>: 작은구들), S: 고팡(수장공간), L: 상방(마루),
- K: 정지(부엌), D: 셋방(식당), \* 굴목(난방을 위해 붙을 때는 공간), \*\* 낭간(퇴)

4간형은 필요 공간의 증가에 호응하여 원형적 3간 구조를 토대로 상방과 정지 사이에 한칸이 더 생겨나 네간을 형성한 구조이다.(그림4, 그림5)

〈그림4〉 4간형 평면 A



〈그림5〉 4간형 평면 B



대체적으로 필요공간 증가시 정지였던 공간이 책방이나 구들로 개조되고 정지는 축출되어 별동으로 지어지므로 3간형이 보편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배치·평면과 가족형태와의 관련을 보면

첫째, 別棟配置로 핵가족적 독립형가족의 생활이 잘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한 울타리내에 부모와 자식부부가 동거할 경우에도 독립성이 존중되면서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 공간구성인 것이다.

둘째, 한정된 최소의 공간에 여러 기능이 집약된 평면을 구성하고 있다. 타 지역은 각 채의 기능과 평면형태가 전혀 다른데 비해 제주민가는 기능과 평면형태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처럼 동일평면이 반복되는 것은 안채·바깥채가 모두 살림채로 구성되며 그것을 이용하는 세대만 다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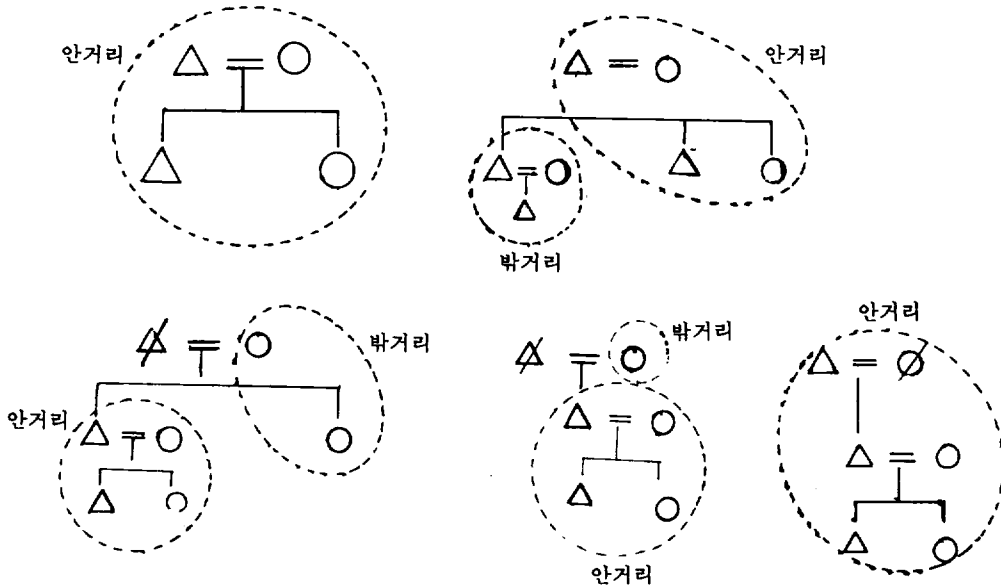
셋째, 민가에서 실별 점유율이 큰것은 부엌, 큰방인데 제주민가의 큰 구들(큰 방)은 발달하지 못하여 작다. 이것은 여성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옥외의 생산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상방이 주로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2. 공간점유와 가족구조

주거공간에서 공간점유 및 기거의 위치는 지위 및 가계의 계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정내의 권력 또는 권위(power) 구조를 반영하거나 상징한다. 가계계승방법은 부모의 사후에 가장권·주부권이 계승되고 기거위치도 비로소 사랑방·안방으로 옮기는 형, 일정한 시기(대략 60세 전후)에 이르러 부모가 권한을 양도하고 사랑방·안방을 내주는 형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제주도는 결혼과 동시에 독립적인 櫟(채)에 거주하고 그에 딸린 각각의 고향을 지니므로써 처음부터 별개의 경제권과 주부권을 획득하였다. 이처럼 생활공간의 독립과 경제적 독립은 대등한 인간관계를 가능케하는 토대가 되었고 따라서 기거위치의 이동은 권력의 이동과 상관이 없다. 즉 가계계승이나 주부권의 양도에 따른 이동이 아닌 가족원의 변화(수의 증감)에 의한다.(그림6)

〈그림6〉 가족원의 변화와 기거위치



그러므로 채와 채 간에는 서열이나 위계성이 없으며 영역성은 수평적 거리에 의한 것으로 공동 생활공간인 마당을 중심축으로 하여 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공간에 위계성이나 권위구조 등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유교의식의 약화에서 결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존여비나 내외사상 등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고 강력한 권위나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 설명은 각 실의 성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민가에서 일반적으로 '마루'는 신성한 공간이며 권위 공간이었다. 영남 및 중부지방 민가의 대청은 지배층 문화의 爲政공간이 민가에서 소박한 敬神, 崇祖공간으로 흡수·동화되어 정착된 것으로 고귀와 권위의 공간이며 위계가 높은 공간이다. 그러므로 실 구성이나 평면형이 그 지방 상류주택을 母型으로 하고 있다. 반면 호남 및 남동해안 지방은 수장공간의 기능 및 家神과 조상이

동거하는 곳으로 생활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했다.<sup>24)</sup>

이에 비해 제주민가의 상방은 생활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중앙에 위치하여 접객, 여름철의 취침, 식사 그리고 가족의 단란과 휴식등 생활의 중심이 되는 안식의 공간이며 구심점을 이루는 장소로 家族愛의 응집장소였다. 이처럼 제주민가의 상방이 생활공간으로서 중심적 기능을 하게 된것은 온난한 기후로 인해 상방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기후적 조건위에 권위나 형식보다 실질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수직적이기 보다 수평적 인간관계에 근거한 가족구조 및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택의 합리적 공간분화 역시 가족관계와 의식구조를 반영한다. 엄격한 남녀유별과 가부장적 권위가 강한 상황에서는 주택의 합리적인 평면구성보다 가부장의 권위와 위풍을 과시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경우 일상 생활의 대부분이 그들의 使用人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동선의 합리적인 계획이나 기능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다만 요구되는 공간을 적절하게 병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sup>25)</sup> 그러나 제주민가의 내부공간은 사회적 공간인 상방(마루방)을 중심으로 私的 공간인 구들(방)과 위생공간인 정지(부엌), 찻방(식당)이 놓여있어 상당히 합리적인 공간분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찻방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으로 사회적 생활공간과 보건위생적 공간의 완충공간이다. 이것은 식사공간이 위생상 기능분화한 것으로 집기류의 비치 및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부엌+상방, 부엌+찻방+상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현대 생활의 기본인 식침분리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기능분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러한 합리적 기능분화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제일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 여성의 역할이 다원적으로 수행됨에 따른 대응인 것이다. 즉 여성이 가사에만 전념할 수 없었던 상황하에서 제한된 공간의 합리적 활용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핵가족 위주의 평면구성에서와 같은 기능적·합리적 구성을 하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거친 자연환경과 고난의 역사는 풍요로운 삶을 허락지 않아 경제적으로 빈곤하였고 이러한 환경속에서 노인이나 부녀자는 물론 가족전체가 협동하여 노동하여야 했으며 강한 생활의지와 근면하고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지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형식과 명분보다는 실리들, 권위에 의한 위계성보다는 평등성이 공간의 주 구성요소로 작용하였다.

## VI. 결 론

주거는 자연·물리적 환경, 사회심리적 환경, 경제·기술 및 여러 복합요인의 영향으로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특유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특히 가족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24) 조성기, 前掲書, p.109.

25) 주남철, "조선시대 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76, pp.18~21.

특이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 제주도 민가는 오랜 세월동안 주어진 환경에 적응·발전하여 오면서 생활여건에 적합한 이상적인 형태를 이루었다.

유동적인 역사의 흐름속에서 기술과 경제의 발달, 사회문화적 이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가족구조도 변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주거형태를 요구하게 된다. 각 사회문화마다 충족되어야 할 욕구와 가치체계가 다르고 이에따라 가족구성원에게 다른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며 주거도 이에 상응하는 구성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민가는 점차 핵가족화 하는 현대의 가족추세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교문화가 쉽게 유입되지 못했고 위치상 해양과 대륙 양면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나름의 고유문화를 형성한 제주도는 그것이 비교적 잘 존속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평등을 기반으로한 가족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공간구성이 이루어졌다.

제주도 민가는 각각 개체로서의 의미와 독립성이 존중되고 비교적 자유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전 가족의 협력이 가능한 상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체적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독립적 공간구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협동과 화합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족들의 상호작용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단위의 가족역할 수행의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족이 한 단위로서의 역할 수행의 효율성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권위의식에 의한 서열적·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정이 넘쳐흐르는 진정한 생활의 場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역할의 다원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대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관에 의한 기능적 공간분화는 제주민가만이 가진 특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들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인간적인 주거를 구성하기 위해 숙고해 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루어온 전통주거 특히 그 중에서도 대다수 민중의 삶이 영위되었던 민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계승의 토대위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사회변화에 따른 적합한 새로운 양식이 요구되겠으나, 구성 방법 및 표출양태는 달라지더라도 개인존중과 家族愛의 기본 정신위에 변화하는 시대상황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거를 창출하려는 다각적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강영환, "민가의 개념", 「건축과 환경」, 1978.8, p.10.
-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1978, p.142.
- 김정기·김홍식, "제주도의 건축",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보고서」, 1973, p.294.
- 김한구, "제주도의 친족조직" 「한국학보」, 1980.19, pp.184~187.
- 김홍식, "한국민가의 유형별 분류", 「건축사」, 1980, 36, p.12.
- 유영주, 「신가족 관계학」, 교문사, 1987, p.70.
- 이광규,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사회학적 측면-가족" 「탐라문화」 1984.3, p.65.
- 이창기, "한반도와 한국 사람: 제주도편" 「한국의 발견」 뿌리깊은 나무사, 1983, pp.178~181.
- 이효재, 「가족과 사회」, 경문사, 1983, p.54.
-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현암사, 1984, p.23.
- 장보용, "제주도 민가의 연구" 「지리학」 1974.10, p.13.
- 주남철, 「조선시대 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76, pp.18~21.
- 조성기, 「한국 남부 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6, p.109.
-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p.19.
- 홍형욱,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7, pp.46~49.
- 홍형욱, "주거의 인간학적인 의미" 「대한가정학회지」, 20권 2호 1982, p.129.
- 原澤東吾, 「建築哲學序説」, 東京, 相模書房, 1974, pp.24~40.
- 石毛直道, 「住居空間の人類學」, 東京, 鹿島出版會, 1976, p.239.
- Adler, A., "Lite style: The Essence of Social Class", in W.D.(ed), 「Life Style and Psychographics」, 1974, pp.235~256.
- Bognar, B.,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Architecture and its Teachig", in D. Seamon & R. Mungerauer(eds),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Mainmus Nijoff pub. 1985, p.189.
- Humphries, G.M., "Values, Satisfaction, Aspirations and Goal Commitment among Multiunit Housing Resident",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 Carolina at Greensbore, 1976, p.25.
- Keiser, M.B., Housing and Environment for Living, Macmillan Publish Co., Inc., N. Y. 1978.
- Mannino, F., "An Ec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Family and Community Relations", 「Journal of Economics」 1970, p.66.
- Rapoport, A.,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Inc., 1969, p.47.



Summary

A Study on the Family Structure and Housing  
— Centering on the Vernacular House in Cheju Island —

*Kim Hye-sook, Kim Haeng-shin*

The housing is shaped a unique type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the fami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structure and housing character (type, layout, space use).

The unique family structure in Cheju island impacts on vernacular houses, which guarntees privacy and interaction, equal family relationship.

This could give a clue to the good housing design go with the social and family structure change.